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 (33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네 번째 확진자 2차 역학조사서 동선·접촉자 추가 확인
- ‘안전 최우선’ 대구·경북발 입도객 긴급지원 전격 시행
- 제주지역 코로나19 안전지대 ‘한눈에’
- 「코로나19」 자가격리·확진자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2020. 3. 5.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3.5.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20.3.5. 0시 기준]

○ (전국) 확진환자 5,766명

○ (제주) 확진환자 4명

< '20.3.5. 0시 기준 국내 발생현황 >

단위: 명

구분	확진환자(누계)				유증상자(누계)			자가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도	4	0	4	0	1,145	98	1,047	141
일일 증감	0	0	0	0	+83	+27	+56	+16
전국	5,766	88	5,643	35	140,775	21,810	118,965	(미공개)

□ 입도객 현황['20.3.4.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4,598명

- 총 입도객 수는 작년 같은 날 대비 55.8% 감소(32,990명→14,598), 전일 대비 6.8% 감소(15,668명→14,598)
- 내국인 14,393명(98.6%), 외국인 205명(1.4%)이 제주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24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11.7% 차지

< 입도객 현황('20.3.4. 기준) >

단위: 명

구분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4,598	14,393	205	24	4	177
	2019년	32,990	29,067	3,923	2,220	242	1,461
	증감률	△55.8%	△50.5%	△94.8%	△98.9%	△98.3%	△87.9%
누계 (2.23.~)	2020년	170,469	166,285	4,184	300	481	3,403
	2019년	393,933	350,581	43,352	23,857	2,630	16,865
	증감률	△56.7%	△52.6%	△90.3%	△98.7%	△81.7%	△79.8%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3. 5.(목)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 없음 ☐		사진 : 있음 ☒ 없음 ☐		후속자료: 있음

네 번째 확진자 2차 역학조사서 동선·접촉자 추가 확인

- 확진자 진술과 CCTV·주변인 증언 대조...동선 내 방문 장소 소독 완료 -
- 접촉자 74명 중 69명 신원확인·67명 자가격리...도 “역학조사 지속 방침” -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46·남)가 방문한 동선 내 장소는 총 8개소이며, 접촉자는 74명이라고 밝혔다.

- 이는 제주도가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CCTV와 주변인 진술을 대조하면서 진행한 2차 심층 역학조사의 결과다.
- 조사 기간은 A씨의 증상 발현 하루 전인 2월 20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3월 3일까지다.
- 앞서 제주도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4일 오전까지 추진한 1차 조사에서 동선 4개소, 접촉자 7명을 확인했다. 이어 5일 오전 10시까지 진행한 2차 조사에서는 동선 4개소와 접촉자 69명을 추가 파악했다.

□ 우선, 제주도는 새로이 확인된 동선 4개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확진자 A씨는 지인의 집에 주로 체류했다고 진술했지만, 2차 역학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퀵서비스 업체 사무실과 아라파파 베이커리, 수목원삼계탕, 황우정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 특히 제주도는 확진자 A씨가 본인 사무실을 4차례 방문해 직원

8명과 각각 다른 날짜에 만났던 사실을 확인하고 사무실 소독과 직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진행했다.

□ 또한, 제주도는 확진자 A씨와 접촉한 74명 중 69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 신원이 파악 안된 나머지 5명은 수목원삼계탕에서의 손님 2명과 서브웨이 연동점에서의 손님 3명이다. 제주도는 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 아울러, 제주도는 수목원삼계탕 종업원 2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완료했으며, 자가격리 조치 예정이다.

□ 제주도 관계자는 “확진자 A씨의 건강상태는 입원 당시 폐렴 소견을 보였으나, 현재는 증상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며 “동선과 접촉자의 정보가 지속 나타나는 만큼, 역학조사를 계속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어 “A씨가 대구를 다녀온 이유는 개인적인 업무 관련이며 신천지와 본인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확진자 A씨는 지난 2월 20일 대한항공 KE1811편을 타고 대구에서 제주로 내려왔으며, 이튿날부터 두통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

- 확진자 A씨의 당초 증상 발현일은 2월 22일로 알려졌으나, 2월 21일 두통약을 복용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역학조사 범위가 조정됐다.
- A씨는 3일 오후 5시경 본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대병원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 30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붙임

도내 네 번째 확진자 진술 및 결재내역 CCTV에 따른 동선 (2.20~3.3)

일자	시간	이동 경로	관련 장소 및 접촉자 조치 사항
2.20	18:25	대구공항(대한항공KE1811) 출발	승객 38명, 승무원 4명 ※자가격리
	19:33	제주공항 도착	
	19:49~ 20:00	공항에 주차해둔 본인 오토바이로 연동 소재 지인 집으로 이동 ※마스크 착용	
2.21		사무실 근무	직원 2명 ※자가격리
	18:07	제스코마트 신제주점 ※ 두통 증상에 약 복용	직원 2명, 손님 1명 ※방역 완료 및 자가격리
2.22		집에서 체류 ※몸살 기운으로 감기약(퀵 배달) 복용	
2.23	11:24 ~11:37	제주은행 신제주점 ATM 이용 ※마스크 착용	접촉자 없음 ※자체 방역 완료
	12:58	연동 아라과과 베이커리에서 빵 구입 후 귀가	종업원 4명 ※방역 완료 및 자가격리
	19:56~ 20:35	연동 수목원삼계탕에서 식사 ※마스크 착용	종업원 2명, 손님 2명(확인중) ※방역 완료
2.24	11:48~ 12:08	노형동 황우정에서 식사	직원 1명, 종업원 2명 ※방역 완료 및 자가격리
	14:00경	사무실 근무	직원 3명 ※방역 완료 및 자가격리
		사무실 앞	직원 1명 ※자가격리
	21:58	뉴월드마트 신제주점 ※마스크 착용	직원 1명, 손님 1명 ※방역 완료 및 자가격리
		집 앞에서 약 전달	직원 1명 ※자가격리
2.25	13:50~ 14:12	한라병원 선별진료소 (화상 진료 후 귀가) ※마스크 착용	※방역 완료 ※정상 진료 중
2.26		사무실 근무	직원 1명 ※자가격리
2.27		집에서 체류	
2.28	14:11~ 14:16	서브웨이 연동점 ※마스크 착용	직원 5명, 손님 3명(확인중) ※방역 완료 및 영업 중단, 자가격리
2.29		사무실 근무	직원 1명 ※자가격리
		집에서 체류	
3.1		집에서 체류	
	18:49	제스코마트 신제주점 ※마스크 착용	직원 1명 ※방역 완료 및 자가격리
3.2		집에서 체류	
3.3	16:30	제주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 진료 후 음압병 상 격리해 검사 시행	※방역 완료 ※정상 진료 중

※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대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총 접촉자 사무실 직원 8명(동선중복 有), 마트 종업원 등 접촉자 64명 등 총 74명

안전 최우선 대구·경북발 입도객 긴급지원 전격 시행

- 코로나 확산방지 차원 5일 오전 티웨이항공 첫 시행...승무원·탑승객 검사 -
- 제주공항 도착 후 별도공간 2차 발열체크...전용 수하물벨트·동선 등 운영 -
 - 선제적 대응, 검사역량 등 고려해 우선순위 두고 검사 시행예정 -
- 대학당국과 긴밀 협조, 입도대학생 관리에도 만전... 사각지대 해소, 면밀관리 -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경북을 다녀온 도민과 입도객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긴급 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첫 번째 조치로 대구발 제주행 탑승객에 대한 발열검사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 10분 대구발 티웨이항공 TW803편 승무원과 탑승객 182명(기장·승무원 6명, 탑승객 176명)에 대해 발열검사를 완료했다.
-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모두 이상 없었다.
- 제주공항 도착 후에는 다른 노선 항공기 탑승객들과 분리된 동선을 따라 별도 공간에서 발열감지 카메라를 이용한 2차 발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대구→제주노선 티웨이항공 탑승객 전용 수하물 컨베이어벨트(1번)를 지정하고, 탑승객 도착장과 동선, 전용 수하물 컨베이어벨트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 항공사 협조로 기내방송과 문자를 통해 △개인위생수칙 △이동 및 접촉 최소화 △의심 증상 발생 때 선별진료소 방문 및 신속한 검사 등 내을 안내했다.

□ 원희룡 지사는 지난 4일 오전 ‘대구·경북지역을 다녀온 도민과 여행객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긴급 지원방침’을 발표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 제주도는 이날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티웨이항공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확정했다.
- 같은 날 도는 국토교통부에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발열검사 시행을 다시 건의했다. (※1차 건의: 2월 19일)

□ 제주도는 최근 대구·경북 방문이력이 있는 확진자가 도내에서 발생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도내 의료기관의 검사역량 등 가용자원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검사대상은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경우로 우선순위는 △1순위, 제주도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 △2순위, 비(非) 제주도민 중 일주일이상 도내에 체류한 사람 △3순위, 불가피한 사정(업무출장, 도내 대학 유학생 등)으로 입도하는 경우다.
- 위의 해당할 경우, 무증상자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도내 6개 보건소의 안내를 통해 검사가 진행된다.
- 한편, 대구·경북 방문이력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는 기존 절차대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 25일 원희룡 지사 주재로 ‘코로나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한 도내 대학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원희룡 지사는 회의를 주재하며 “개강을 앞두고 입도하는 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규정이나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대응책을 신속하게 만들어 행동에 옮겨야 하고, 치밀하고 면밀한 시스템이 갖춰

져야 한다” 고 밝혔다.

□ 제주도는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입도 학생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대학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 4일 기준 도내 대학 대구·경북 지역 입도 학생은 109명이다. 대학에서는 학교 차량을 이용해 공항에서 학교로 학생을 수송하고, 2주간 자율적 관리를 한다. 학생 동의 시 기숙사 등 숙소를 제공하고 하루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3월말까지 116명이 입도할 예정이나 대학 개강이 오는 16일로 연기되고, 개강 후에도 2주간(3.16~3.29까지) 비대면 강의(온라인 재택수업, 과제물 제출)로 대체 돼 입도 학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문의 : 공항공청지원단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팀장 064) 710-4841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김영희 팀장 064) 710-3891

붙임 관련 사진



(대구공항 출발전 탑승객 발열검사 실시 장면)



(제주국제공항 대구 승객전용 수하물 컨베이너벨트로 입도객 동선 분리중)



(제주국제공항 대구 탑승객 이동 동선에 맞춰 소독 진행)

제주지역 코로나19 안전지대 ‘한눈에’

- 도, 5일부터 방역 정보 담은 ‘제주 코로나19 안심존’ 지도서비스 제공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정지역 위치 정보를 안내하는 ‘제주 코로나19 안심존’ 지도서비스(<https://gis.jeju.go.kr/crm/index.do>)를 오늘(5일)부터 본격 제공한다.
-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장소 등에 대한 방역 정보를 한눈으로 볼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제주 코로나19 안심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제주도가 방역소독을 실시한 시설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서비스를 통해 주소와 명칭(상호)를 입력하면 지도검색, 현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제주지역 확진자가 거쳐 간 시설뿐만 아니라 방역소독이 실시된 다중이용시설에는 시설주가 희망하는 경우 ‘청정제주 클린존’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 도는 방역소독이 완료된 시설에 대한 정보(주소, 소독일, 소독주기 등)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청정한 곳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등 진료시설의 위치 정보와 전화번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도민과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복지시설, 문화관광체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소독 정보도 담겼다.

□ 향후 제주도는 ‘청정존’ 지정 대상을 소상공인 업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도민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 안전제주·청정제주 이미지를 확산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만덕 정신을 계승하는 만덕정신 인증마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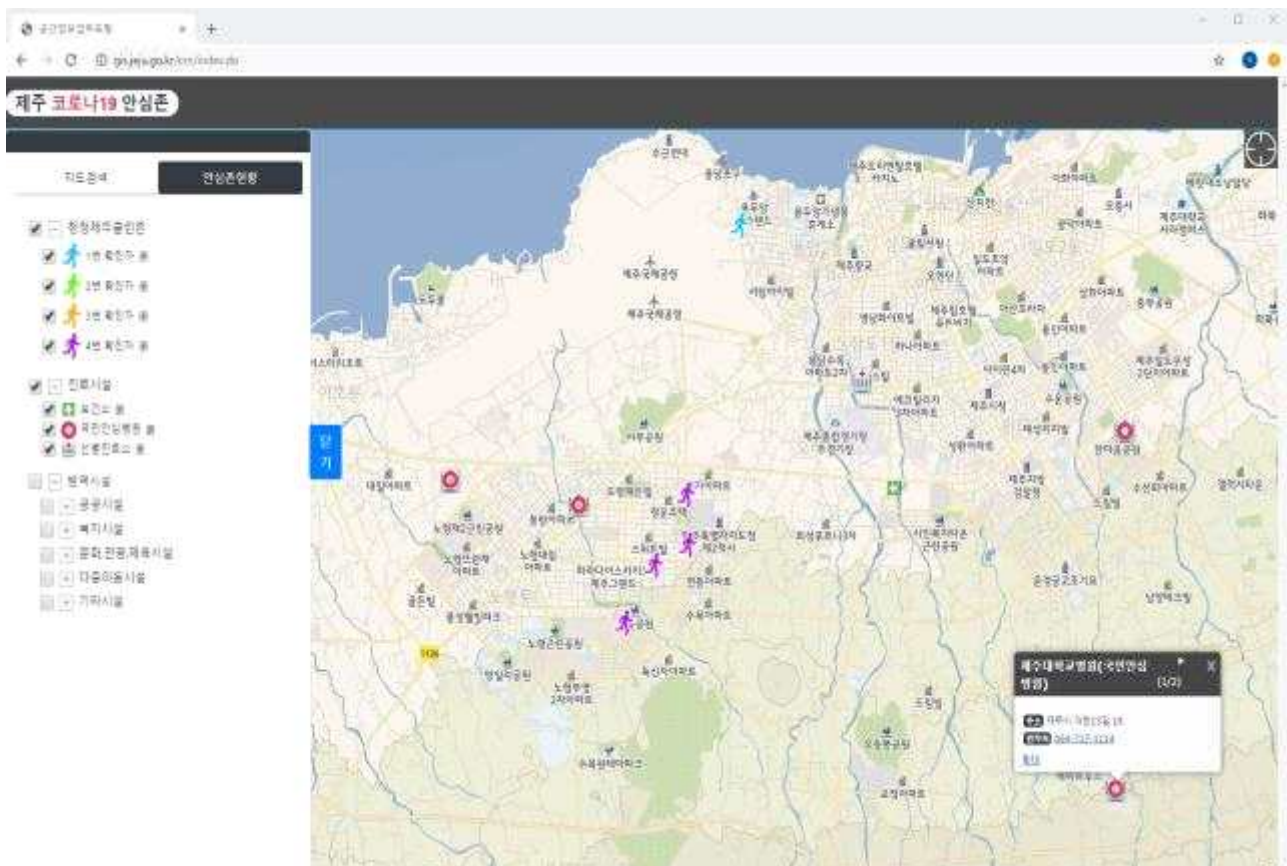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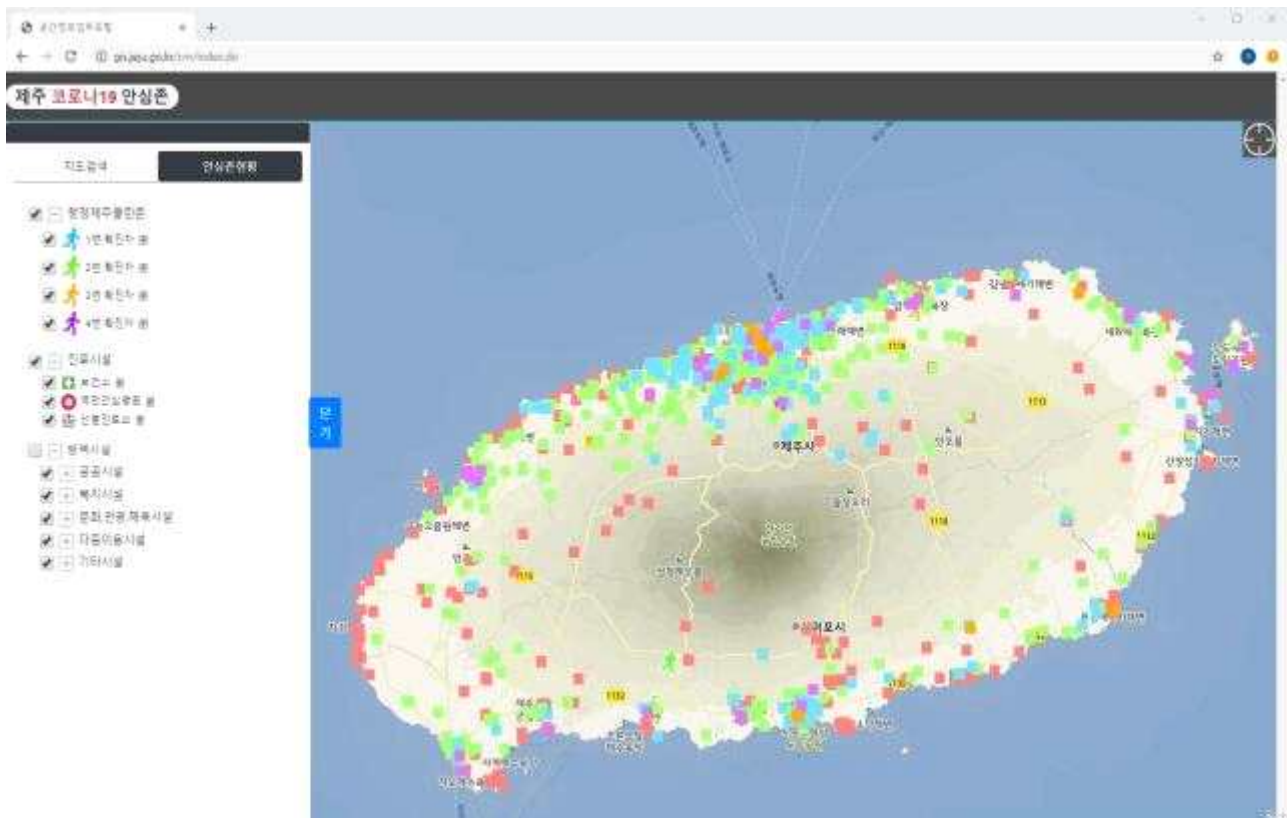
* 만덕정신 인증 마크제: 중장기적으로 나눔과 배려의 만덕정신을 계승해 민·관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인증 마크제

※ 관련 문의: 비상경제지원단 고경민 비상경제상황실장 064) 710-3950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이순심 안전정책팀장 064) 710-3851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박찬혁 스마트시티팀장 064) 710-4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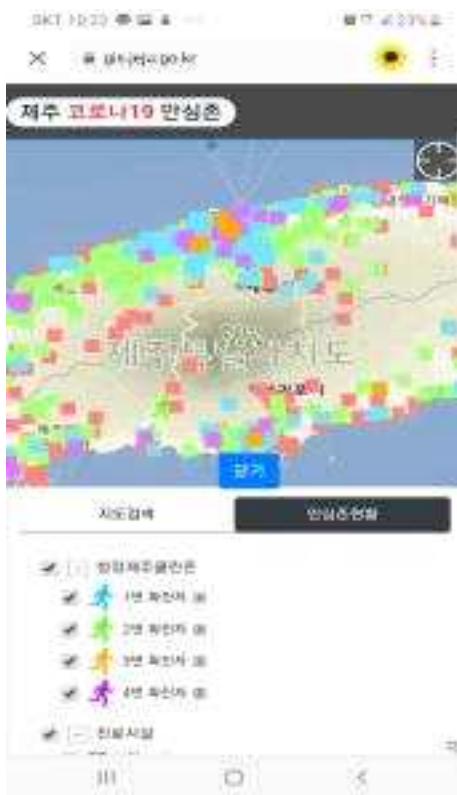
〈청정제주 클린존 인증마크(시안)〉



<코로나19 안심존 서비스 화면- PC웹 버전>



<코로나19 안심존 서비스 화면- 모바일 웹 버전>



중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내용
청정제주클린존	1번 확진자	1번 확진자가 들린 것으로 파악된 시설 정보
	2번 확진자	2번 확진자가 들린 것으로 파악된 시설 정보
	3번 확진자	3번 확진자가 들린 것으로 파악된 시설 정보
	4번 확진자	4번 확진자가 들린 것으로 파악된 시설 정보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도서관	도서관
	환경시설	클린하스, 재활용센터
	기타	기타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보육시설, 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자기주도학습센터
	여성복지시설	여성이용시설, 여성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마을회관/복지관	마을회관, 복지관, 리사무소
	다문화복지시설	다문화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요양원
	기타복지시설	기타
문화, 관광, 체육시설	박물관	박물관
	전시관	전시관
	공연시설	공연시설
	미술관	미술관
	관광지시설	관광지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생활편의시설	영화관	영화관
	전통시장	전통시장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항포구대합실
	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
	상가	상가
기타시설	금융기관	금융기관
	장례식장	
	민간시설	
	아파트	

「코로나19」자가격리·확진자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 제주도, 격리 기간 동안 불안감 해소 및 원활한 일상 복귀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 유관기관 함께 응급 심리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광역정신복지센터는 지난 2월 17일부터 ‘코로나19 심리지원 24시 핫라인(1577-0199)’을 통해 심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보건소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정보가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확진자가 퇴원 시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심리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 특히, 보건소는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주지역 담당 국립정신의료기관인 국립나주병원((061-330-7724)도 안내하고 있다.
- 제주시·서귀포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심리지원 총괄 및 심리지원 홍보 활동을 통해 국립정신의료기관과 연계된 대상자 사례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 센터는 격리해제 이후 전화 또는 대면방식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대상자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 아란13길 15(제주대학교병원)	064-717-3010
	제주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 연삼로 264(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74
	서귀포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52(서귀포보건소)	064-760-6551

- 제주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상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붙임 심리지원 서비스 현황

- 심리상담 요원 : 26명(광역 15 , 제주시 8, 서귀포시 3)

(2020. 3. 4 현재)

구 분	총 계	상 담			정보 안내		
		소계	전화	대면	소계	문자 안내	리플릿
계	323	177	177	-	145	145	-
격리자	322	177	177	-	145	145	-
일반인	1	1	1	-	-	-	-

-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6.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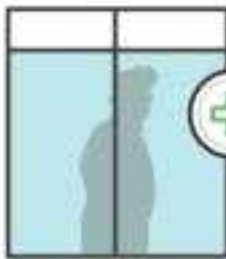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참고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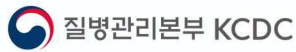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